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	김희재 상임위원장
담당자	권영근 비서관 / 010-7535-7975	담당자	
		E-mail	geun0330@naver.com
사진	0	영상	X 기타 첨부자료

## 11일, 민주당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출범식 개최

### - “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정 사다리’ 복원”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0일 교육대전환 공약 발표에 이어, 11일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상임위원장 김희재 국회의원) 출범식을 개최했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의 연이은 교육 정책 발표 등 일정은 이재명 후보의 교육대전환 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교육격차를 회복하고 ‘유능한’ 이재명 후보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희재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상임위원장, 위계점 공동상임위원장, 김민태·유희태·이호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태 공동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내빈소개, 축사, 교육 대전환 정책 기조강연,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결의문 낭독, 임명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6년 동안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입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격차(문제)를 피부로 느낀 사람”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8대 교육공약이 잘 소화되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아이디어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역할을 해달

라” 고 당부했다.

김희재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육격차 없는,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뿐”이라며 “교육의 ‘공정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교육격차 없는 세상을 위해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위계점 공동상임위원장은 “교육격차 해소는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교육격차 없는 세상,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앞으로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상진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 대전환은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전 지구적 혼란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도전을 극복하는 미래 교육의 혁신적 패러다임 재설계를 의미한다”며 “교육이 국가혁신과 포용국가를 위한 DNA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교육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 디지털·정보지식의 불평등, 지역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결의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교육의 ‘공정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첨부] 현장 사진



